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5



▶한줄요약
손타라 때문에 출가를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난타는 붓다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출가하겠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는 손타라에게 돌아갈 궁리만 하는데….

억지로 출가를 약속한 난타

뉴델리에서 며칠 ②

2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붓다는 무엇 때문인지 발우를 받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는 몸을 돌리면서 제자에게도 발우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당신은 누구에게 그 발우를 받으셨습니까?

눈치를 못 챈 난타가 발우를 제자에게 주려고 하자 제자가 정색하고 물었다.

난타는 멍청히 제자를 쳐다보았다. 생각 같아서는 이 사람아 하고 손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분명 제자는 그 옛날의 코흘리개 동무가 아니었다. 어엿한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서 난타는 감히 범치 못할 위엄을 느끼며 방금 발우를 붓다에게 받았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붓다께 드리십시오.

난타가 앞을 바라보니 이미 붓다는 저만큼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감히 불러 세우지는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그는 발우를 들고 붓다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멀리서 바람이 쉼 없이 불어왔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채 식지 않은 지열이 그들의 옷자락을 휘감았다.

이윽고 정사에 이른 붓다가 손발을 씻은 뒤에 자리에 나아가 앉았다.

그제야 난타가 발우를 가지고 들어가 붓다에게 바쳤다.

붓다가 말없이 발우를 받아서는 속의 음식을 들고나서야 난타를 찾았다.

-난타야 이리 오너라.

-붓다시여.

-내가 여기 밥을 남겼느니라. 내가 남긴 이 밥을 네가 먹겠느냐?

-먹겠습니다.

난타가 대답했다.

붓다가 그에게 발우를 주었다.

난타는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

-난타야, 너는 출가하지 않겠느냐?

난타가 다 먹고 나자 붓다가 물었다.

난타는 손타라가 생각났지만, 붓다의 바람을 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출가하겠습니다.

-사리풋드라야.

붓다가 제자 중에서 연장자인 사리풋드라를 찾았다.

사리풋드라가 붓다 앞으로 다가왔다.

-찾으셨습니까?

-너는 난타의 수염과 머리를 깎아 주어라.

-그러하겠습니다.

사리풋드라가 대답했다.

난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방금 출가하겠다고는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머리와 수염을 깎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솔직히 붓다의 위엄과 존경심 때문에 그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을 뿐이지 막상 출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리풋드라가 이발사를 데리고 다가왔다.

-저 사람의 수염과 머리를 깎으시오.

사리풋드라가 이발사에게 말하고 가버리고 나자 난타는 수각 쪽에서 칼을 가는 이발사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난타의 말에 이발사가 영문을 모르고 눈을 크게 떴다.

-내 마음을 말이오?

-제가 어찌 그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만두시오. 나는 오래지 않아 카필라의 전륜왕이 될 터인데 당신이 함부로 내 머리를 깎게 되면 장차 나는 당신의 팔을 잘라 버릴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이발사는 겁에 질려 머릴 깎는 기구를 주섬주섬 싸기 시작했다.

사리풋드라가 돌아와 보니 이발사가 떠나려고 하고 있다.

-왜 그러는가?

사리풋드라가 그를 향해 물었다.

이발사가 머리를 홰홰 내저었다.

-저는 저분의 머리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린가?

난타가 슬며시 시선을 돌렸다.

그런 난타를 흘끔거리며 이발사가 고개를 내저었다.

-저분은 머리를 깎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카필라의 전륜왕이 될 것인데 만약 자기 머리를 깎는다면 내 팔을 잘라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사리풋드라가 난타를 쏘아보았다.

-그게 사실이오?

난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길로 사리풋드라는 붓다에게로 갔다.

난타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붓다가 밖으로 나와 난타에게로 다가갔다.

-난타야, 나에게 거짓말을 했더냐?

붓다가 확인하듯 물었다.

위엄에 짓눌린 난타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출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리 오너라.

난타가 가까이 다가가자 붓다는 스스로 병에 든 물을 가져와 그의 머리에 부어 주었다. 붓다는 알고 있었다. 난타의 마음을. 그렇게 난타의 마음을 시험해 본 것이었다. 삭발은 수행적 삶을 시작하는 의식이다. 세속의 삶을 버렸다는 징표요 일체중생을 구하겠다는 수행자의 서원이다. 그러므로 이발사가 그 의식을 대신할 수 없다. 정인(淨人)이 그 의식을 맡는다.

출가를 생각했던 적도 있긴 했었지만, 막상 정인이 머리를 깎겠다고 나서자 난타는 손타라의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 지금쯤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럴 수는 없다. 붓다도 무심하시지. 출가시키려면 작정할 시간을 주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자 하기야 싶었다. 그동안에 주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붓다의 제자가 되어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자 한 사람에게 빠져서는 발심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만큼 시간을 주었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이렇게 출가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출가하겠다고 했으니 머리를 깎겠지만 날만 저물면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될 것 아닌가.

하지만 이미 붓다는 난타의 그런 마음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난타가 가는 길에다 큰 구덩이를 파 놓았다. 구덩이 주위는 수풀이 우거져서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었다. 구덩이를 건너가려고 했지만 얼마나 깊고 크게 파놓았는지 도저히 날이 밝지 않고는 그곳을 건너갈 수가 없었다.

난타는 구덩이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손타라만 생각했다. 날이 밝는 대로 다른 길을 잡아 떠날 생각이었다.

향실에서 선정에 든 붓다는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는 날이 밝기 전에 사리풋드라를 찾았다. 사리풋드라가 가까이 다가오자 붓다는 그에게 일렀다.

-난타에게 가서 내가 지사인(知事人)을 삼겠다고 일러주어라.

사리풋드라가 난타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손타라에게 돌아가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에게 일렀다.

-난타여, 붓다께서 그대를 지사인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인이 무엇이오?

난타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그대는 여러 가지 일을 보살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오?

-난타여, 지사란 비구들이 탁발을 나가면 도량에 물을 뿌려 말끔히 쓸어야 합니다. 소가 변을 보면 그것을 깨끗이 치워야 하고, 정사를 정신 차려 지켜서 실수가 없게 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평장사(平章事)가 대중 스님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대는 향과 꽃이 있으면 마땅히 대중들에게 주어야 하며, 밤이 되면 문을 닫고 새벽이 되면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소변을 하는 곳을 언제나 깨끗이 씻고 닦아 내야 하며, 정사 안에 파괴된 곳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난타는 기가 막혔지만, 고개를 떨구었다. 손타라가 계속 눈에 밟혔지만, 붓다에게 출가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더는 어린아이처럼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쓸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날이 밝아 비구들이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다.

난타는 정사가 완전히 비자 잘됐다 싶었다. 마당이나 쓸고 집으로 가 버리자는 속셈이었다.

-먼저 낙엽 쌓인 도량부터 쓸어야겠다.

그는 비질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깨끗이 쓴 곳을 되돌아보면 낙엽이 쌓이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되돌아보면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대로 나가다간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그만 문이나 닫아 놓고 가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은 떠나가지만, 도둑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는 차례로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음 문을 닫으려고 하면 먼저 닫은 문이 계속해서 열렸다. 닫고 또 닫고 닫고 또 닫고 그러다 그는 문을 닫기조차 포기하고 말았다.

문이 열리는 것 같더니 기다리다 지친 표정을 하고 송 서화가가 들어왔다.

-아직 멀었지요?

내가 노트에서 눈을 떼며 웃었다.

-어휴 눈이 빠질 것 같네요. 이제 시작인데.

-양이 꽤 되는 모양입니다?

-양보다도 읽기가 힘들어서…

그가 잠시 머뭇대다가 나갔다.

다시 노트에 시선을 주다가 일어나 창을 좀 열었다. 낯선 풍경이 시야를 사로잡았다. 문득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을 쓴 이석원이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노트에 눈을 붙박았다.

-그래, 그냥 가 버리자. 도둑이 들어 정사를 모두 부수어 버린다 해도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장차 왕이 될 몸이다. 그때 가서 여기보다 백천 배도 더 되는 좋은 정사를 지으면 될 것 아닌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정사를 나왔다. 곧장 마을로 내려가다가는 붓다와 마주칠 것이 뻔했으므로 그는 지름길을 택해 걸었다.

그러나 붓다는 이미 그의 생각을 간파하고는 그가 걷고 있는 작은 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난타가 고개를 들어보니 붓다가 저만큼 올라오고 있다.

난타는 큰일 났다는 생각에 길 곁에 가지가 드리워서 그늘이 진 나무가 있었으므로 그리로 달려가 그 아래 몸을 숨겼다.

나무 가까이 다가온 붓다가 걸음을 멈추고 난타를 불렀다.

-난타야, 이리 나오너라.

난타는 하는 수 없이 나무 밑을 나와 붓다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따라오너라.

붓다는 그렇게 말하고 앞서 걸었다. 난타는 하는 수 없이 붓다의 뒤를 따랐다.

붓다는 앞서 걸으면서 그에게 물었다.

-아직도 결심하지 못했더란 말이냐?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러합니다.〈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3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수행 법회 사찰 운영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마음과학에 대한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3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농협, 355-0061-8192-63)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